

“호모 사피엔스 진화를 이끈 7가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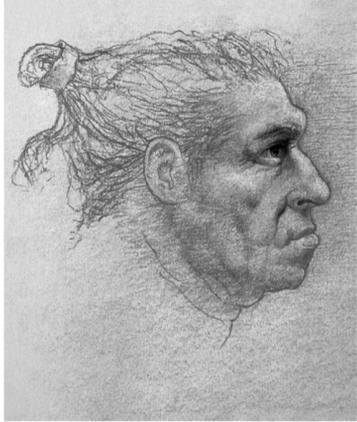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인류 진화의 일곱 걸음
패멀라 S.터너 지음 장한라 옮김



“이 행성은 확고한 증력의 법칙에 따라 순환하는 동안, 너무나 단순한 데서 시작해 가장 아름답고도 놀라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왔고, 또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1859년 ‘종의 기원’을 펴내며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의 말이다. 호미닌(Hominin)은 ‘인간과 인간의 모든 조상 종(種)’을 의미한다. 800만여 년 전 동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살던 유인원, 인간의 머나먼 조상은 어떠한 진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에 이르렀을까? 호미닌의 진화는 다윈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과학 논픽션 작가 패멀라 S. 터너는 현생 인류의 진화 여정을 ‘일어사’ → ‘돌을 깨부수다’ → ‘머리가 커지다’ → ‘하이킹에 나서다’ → ‘바비큐를 발명하다’ → ‘말하기 시작하다’ → ‘이야기꾼이 되다’ 등 7단계로 나눠 풀어간다. 첫 번째 단계는 두 발로 ‘일어사’이다.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370만 년 전 발자국 화석은 영장류의 직접 보행을 증명하는 물증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돌도구의 사용이다. 340만 년 전에 ‘최첨단 기술’인 돌도구로 고기를 잘랐고, 240만 년 전에는 새로운 종인 호모 하빌리스(손 쓴 사람)가 등장한다. 이들의 도구 기술은 ‘울도완 양식’이라 불린다. 호모 에렉투스는 ‘아슐리안 도구’(주먹도끼)를 발명했다. 이처럼 도구사용과 사회화동을 통해 ‘채취 약탈자’인 초기 인류조상은 진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에서 진화해온 수많은 종(種)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고생물 예술가 존 거치가 그린 ‘남성 네안데르탈인’(왼쪽)과 조개화석을 중앙에 두고 제작한 30만 년 전 주먹도끼.



진화과정을 활자로 읽어가며 고생물 예술가 존 거치의 그림, 다양한 화석사진을 통해 공감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나갈 수 있다.

호모 에렉투스와 호빗,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등은 모두 멸종했다. 현생 인류는 지구상 유일한 호미닌이다. 호모 하빌리스의 생존전략은 ‘공유’와 ‘협동’이었다. 180만 년 전 동정심을 품었던 호모 에렉투스는 자선활동의 조상이라 할 수 있다. 현생 인류의 장점은 의사소통과 협동을 통한 ‘집단적인 지적 능력’이다. 저자는 결론 ‘지배하다’에서 기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협동

화를 거듭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뇌 부피 증가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450ml)에서 150만년 후인 호모 하빌리스(610ml), 다시 60만년 뒤 호모 에렉투스(980ml)를 거치며 뇌 부피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열량이 풍부한 식단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진화다. 네 번째 단계는 기후변화에 의한 가혹한 환경에 처하자 자신이 태어난 고향 대륙을 떠나, 그 어떤 호미닌도 기본적으로 없는 곳으로 담대하게 향했던 ‘이주(移住)’다. 이후 이어지는 불과 언어의 사용,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현생 인류의 밑바탕을 형성했다. 독자들은 장구한 시간에 걸친 인류의

능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종(種)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은 우리를 갈라놓는 힘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단순히 인류의 진화역사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인종이 문화적 개념이지, 생물학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작가의 말’은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700만 년 전 비롯된 최초의 호미닌 ‘진화’의 발원지는 인종전쟁과 이념갈등, 기후위기 등 현재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듯 보인다. <롤러코스터·1만76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운 책

▲마은의 가게=서른일곱 살 ‘마은’은 빗쟁이들을 피해 카페를 연다. 특별히 내세울 경력도 없던 그는, 거주하던 고시원 등을 정리하고 가게에서 먹고 잘 생각을 품는다. 그의 절실함 때문인지 ‘보양’ 등 단골손님들이 이곳을 찾으며 서로 인간성을 느낀다. 컵라면 이야기, 찐 감자 이야기 등 엉뚱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해 간다.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연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학과지식사·1만6000원>



▲주변의 모든 것을 화학식으로 써 봤다=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이란 무엇일까. 부엌에서 요리할 때 볼 수 있는 화학 반응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화학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CO2덩어리인 드라이아이스부터 고리 형태의 분자 사이클로덱스트린 구조 등을 이야기한다. 흥미를 느낄 만한 소재인 ‘단 걸 먹어도 충치에 덜 걸리는 방법’이나 ‘놀린 머리카락과 수소 결합’ 등 과학적 지식도 알려준다. <더숲·1만8000원>



‘주석’이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이다. 주역을 해설한 ‘계사본’을 엮어 한문으로 된 고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통나무·2만8000원>

▲지속가능한 리더십=좋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시대를 관통하는 ‘리더십 방법론’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리더십’은 연구가 필요하다. 북미에서 교육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전문가가 학문적 지식, 컨설팅 경험 등을 응축했다.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불가능성, 공존의 리더십과 그 복잡성 등 나름의 원칙들을 설정하고 교육이 발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살림터·2만1000원>

▲도를 주역 계사전=우주에 깃들여 있는 운행 원리와 이치를 ‘음양론’에 따라 해설한 책. 64개의 괘상과 384개의 효사 등, 천지 간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저마다 심오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해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공자의 저술로 알려진

어린이·청소년 책



▲동백꽃, 울다=제주 해녀 왕할망 고길영은 4월 3일 막냇동생 춘만이와 함께 단작 ‘승자’와 삼일절 기념일에 간다. 엄마 몰래 빨래하고 울 계획이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 독립’을 외치는 소리와 함께 4·3에 휘말린다. 기마경찰의 말이 아이를 건어차고 화가 난 사람들이 항의하는 모습 등, 불행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한다. <풀빛·1만3000원>

이드다움’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존재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술 발전의 시대 속 ‘기술의 윤리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지북·1만5000원>

▲꿈꾸는 로봇 마젠타=로봇이 본격적으로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한 미래, 인간이 종속되어 살아가다 해체될 운명에 처한 로봇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간 다움’을 고민하는 로봇 마젠타는 ‘안드로

▲14살부터 시작하는 나의 첫 돈 공부=고등학생 미호는 돈에 대해 지식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다.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다루는 경제 수업을 통해 점차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꿔 나간다. 총 여섯 개 도입부에서 돈의 역사부터 역할, 인플레이션과 가격 변동 등 핵심적인 개념들을 설명한다. <뜨인돌출판·1만6800원>

청년 작가들이 들여다 본 다양한 현대사회 모습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김멜라·김지연 외 5명



출판사 문학동네가 펴내는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소설 애호가들이 매년 기다리는 책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젊은작가상은 작품활동을 시작한 지 십 년이 넘지 않은 작가들이 한 해동안 발표한 중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 상을 통해 소개된 작가는 62명. 젊은 작가들의 도전과 패기 넘치는 작품은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남숙·성해나·전지연 등 5명은 올해 처음 선정됐으며 김지연은 세번째 수상자가 됐다. 수상작들은 타인과의 단절, 청년 세대의 현실, 인간의 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대상작은 2021년부터 꾸준히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던 김멜라의 ‘이웃 이웃’이다. ‘제 꿈 꾸세요’ 등을 통해 독특한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준 김멜라 특유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으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웃 이웃’은 성적 욕망을 해소해주는 기계가 발명된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품 제목에 등장하는 ‘이웃’은 2차 성징이 지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둥근 모양의 기계로, 원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성욕을 충족할 수 있다.

소설가 최은미는 이 작품에 대해 “여전히 김멜라의 고안과 발명들로 반짝이면서도 그간의 어느 작품보다 그리움과 상상의 정서들로 감동과 감각을 흔들여 놓는 소설”이라고 평했다. 공현진의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에는 수영 센터 강습반에서 풀썩을 도맡아하는 광주호와 문화주가

등장한다. 자주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놓인 희주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다정함의 소유자 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수영을 함께 배우나 간다. 해설을 쓴 이소 평론가의 말처럼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냉소나 허무에 가닿는 대신, “끝까지 최대한 살아볼 수밖에 없다”는 긍정의 마음으로 이어져 따뜻하다.

김지연의 ‘반려빛’은 전 애인과 동거하면서 생긴 1억 6000만원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사랑이나 연대의 쓰라린 기억 다음에 오는”(배명훈) 것들에 대해 들려주며 김기태의 ‘보편 교양’은 고전읽기 수업을 맡은 교사 ‘곽’이 어느날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밖에 박수무당 등 무속 문화를 소재로 한 성해나의 ‘혼노노’, 폭력의 구조에 질문을 던지는 김남숙의 ‘파주’ 등을 만날 수 있다. 각 소설의 마지막에는 작가노트와 함께 평론가들이 쓴 해설이 함께 실렸다. <문학동네·77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